

각 학교의 각종 사회적 기능(학교의 전반적 재미, 급식의 맛, 사귀 친구의 수, 예체능 수업의 재미, 그리고 현장실습을 한 정도)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후, 차후에 어떠한 학교의 감정적 기능을 알고 싶으면 그 학교명만 입력하면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교명만 입력하면 다른 학생들이 해당 학교의 사회적 기능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직관적인 영어와 맛깔나는(?) 사이안색 그래프로 바로 볼 수 있도록.

코드를 잘 보면, 텍스트 파일로 받는 각종 내신, 학점,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 출력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sup>1)2)</sup> 이는 학교의 사회적 기능은 소위 “스펙”과는 관련없음을 사용자에게<sup>3)</sup> 상기시킨다는 이상적인 목적과, 이 라이브러리를<sup>4)</sup> 구매해서<sup>5)</sup> “어떤 학교가 재미와 경험이 많은지 알려드리는 사교육 업체”로<sup>6)7)</sup> 스스로를 홍보할 미래의 사교육 업체를 양성(?)한다는 현실적인 목적을 전부 충족하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 
- 1) 이것을 입력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학교 출신임을 증명하기 위해 생기부를 받는 것. 소위 “무작위 테러”나 “악플 테러”, “별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 2) 의도가 하나 더 있으며, 자세한 것은 후술.
  - 3) 예상 사용자층은, 학교를 선택할 때 내신의 어려움이나 취업의 어려움은 이미 다른 곳을 통해 조사한 지 오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밌고 경험이 많은 학교로 가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학교 가야 넷 신 따기 쉽다”, “~~학교 가야 취업이 잘 된다” 등으로 말씀하셔서 부모님과 싸운 적이 있는 사람이 주 사용자 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4) 스펙이 담겨있는 텍스트 파일을 읽어오는 횟수와 “사회적 기능 점수”를 입력받는 횟수가 같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같은 사용자에게 생기부와 “사회적 기능 점수”를 동시에 받아와야 하니, 사교육 업체에게는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st 변수에 스펙도 “사회적 기능 점수”도 저장되어있으므로, “사회적 기능 점수”만 출력해주는 이 라이브러리에 스펙을 따로 꺼내 보관하는 코드를 추가한다면 슬쩍(?) 스펙을 이미 쓰이고 있는 자사의 AI에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 5) 인디 코더도 언젠가는 돈을 벌어야 하니 언젠가는 상용화할 수도 있습니다. 상용화한다면 경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은 학교의 사회적 기능을 코시국(?) 때문에 제대로 못 느낀 한 세대를 위해 기부될 것입니다. :)
  - 6)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는 내신, 수능, 학점 따기 위한 기관만이 아님에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우연히도(?)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 업체 입장에서는 예상 사용자층.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영리 기업이 광고로나마 나서는 것은 이미 하나의 마케팅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환경”을 “학교의 사회적 기능”으로 바꾸지 못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D
  - 7)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마케팅으로 각 학교 내신, 학점, 자격증 강약 여부를 많이 받으면 사교육 업체 입장에서는 바로 쓸 수 있는 빅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비정하다면 지금 쓰는 구글 계정부터 탈퇴해야 합니다. 구글 등 현존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은 이런 데이터를 알게 모르게 받아서 빅데이터화, 광고화하여 돈을 버는 구조이므로. :)